

##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권 미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서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문화적 전통을 전수시키는 자로서 자녀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이며 또한 자녀로 하여금 친밀감, 보장감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가장 밀접한 직접적인 환경이 된다(이자형, 1996).

어머니의 양육 대상인 영아는 그 의존적인 특성 때문에 어머니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안에서만 영아의 욕구를 충족되어진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보살핌 결핍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장애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격발달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utter 1979).

영아기 경험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돌봄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아를 돌보아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그것은 영아기 초기 중요한 근육운동과 감각적인 자극의 부족,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환경 결여 및 영아에게 신뢰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반응 등의 부족은 아동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이은숙, 1987). 영아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의 상태 및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줌으로써 영아가 자신에게 제공된 자극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Wachs & Gruen, 1984). Ainsworth등(1978)은 영아의 애착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민감성이 효율적인 돌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아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반응하도록 어머니를 돕는 것은 더욱 긍정적인 부모-영아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증진하는 것이다(Lynda Harrison & Roy Ann Sherrod, 1991).

현 시대를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의 위기로 인식하는 전문가들(김재은, 1995; 이광규, 1995; 홍강의, 1995)의 의견으로는 원하지 않는 10대 임신의 증가와 자기 아기의 양육을 거부하는 부모의 증가, 아동양육 방법의 혼돈 즉 자녀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되거나 거의 없어 출산후 자녀양육 문제로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환경 특히 양육자의 부적절한 보살핌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성 애착장애, 자녀중심이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녀들을 자신의 부속물 내지 장식물로 여기

\*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는 경향인 부모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태도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영아를 위해 하고자 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 지지해 주고 민감한 모아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는 어머니의 영아 신호에 대한 반응, 인지를 사정하고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중에는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모아상호작용이 증진된다는 결론을 유도한 논문들이 있을 뿐 정작 영아가 나타내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신호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연구는 어머니들의 영아 신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1) 협음신호, 비협음신호, 반사 행동 및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을 파악한다.
- 2)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 정도를 비교 한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지역 정상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 II. 문헌고찰

### 1. 영아신호와 모아상호작용(infant cue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상호작용이란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어 일정한 현상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모아상호작용이란 어머니와 아기간에 관계가 성립되어 자연적인 상황하에 서로가 실제로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모아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과정으로서, 모아상호작용의 주된 기능은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반응하고 또한 영아는 어

머니에게 반응하므로써,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영아의 능력에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발달적 의의를 가져오게 된다(권인수, 1992). 이러한 모아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행동조직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영아의 암시, 신호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모아상호작용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모아 상호작용 체계의 특성을 형성하므로 중요시 된다. 적응적인 모아상호작용 양상은 최적의 영아 발달을 증진시키는 상호성, 호혜성(reciprocity), 질(quality)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런 양상의 발달은 영아의 행동 신호에 대해 부모가 해석하기 어렵거나 영아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방해 받는다. 영아의 행동 신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고 이해하도록 부모를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의 발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아의 최적 발달에 기여하게 한다(Lynda Harrison & Roy Ann Sherrod, 1991).

출생후 이루어지는 신생아의 모아상호작용은 영아의 신호에 엄마가 반응하고 또한 엄마에 의해 아기가 반응하는 끊임없는 상호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 조절 과정으로, 모아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대화 체계의 모든 발생, 시각적 응시, 몸동작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와 아기가 알아가는 과정에 모아의 상호작용은 불가결한 것이다(조, 1993). 모아상호작용의 주요 기능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영아가 정보를 받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결정해 준다. 즉, 영아기의 초기인 1-3개월시 시각적 상호작용, 사회적 놀이, 애정이 깃든 안아주기 혹은 쓰다듬어 주기 그리고 영아의 발생이나 안달거리는 울음에 부수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준 어머니의 영아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여아 보다 생후 9개월과 2년에 측정한 인지적 능력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영아를 만져 주거나 안아주거나 수유시 영아의 먹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고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능숙하게 반응을 보여준 경우 어머니와의 사이 안전한 애착관계를 가져,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모아 사이의 상호작용 양보다는 그 질인 것이라 하였다(Matias, Arend, Sroufe, 1980 ; Bee, Barnard etc., 1982).

모아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돌보는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여 상호 교환하며 동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달되어간다. 이 모아상호작용 과정에는 어머니와 영아가 서로 상대방이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상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어머니의 민감성(responsiveness or sensitivity)

Ainsworth 등(1978)은 영아의 애착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민감성이 효율적인 돌봄의 행동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아기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민감성은 아기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 신호를 반복해서 반응으로서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Barnard, 1978). Ainsworth, Bell & Stayton(1974)은 엄마의 반응의 민감성에 대한 4가지 기본 요소로서 영아의 신호에 대한 의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영아의 신호에 대한 적합한 반응, 영아 신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제시하였고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의 필수 조건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바람이나 기분 혹은 환경에 따라 영아의 신호를 왜곡시키지 않은 채 영아의 감정이나 바람 등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아 발달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자와 행동주의학자들이 공통되게 중요시하는 반응적인 환경이 영아의 암시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임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민감성이란 어머니의 일반적인 성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영아의 행동적인 면과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사정은 영아 반응과 무관된 채 측정되어질수 없다. 이와 같은 민감성은 영아기 가운데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산후 첫 3개월 동안의 수유상황에서 배고픔과 같은 영아의 불쾌함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잠재정도를 관찰함으로써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Ainsworth, 1974). 정상 신생아를 가진 초산모를 대상으로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을 연구한 이은숙(1987)의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외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행동 민감성 문항, 모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문항, 영아 행동 민감성 문항의 순으로 점수를 나

타냈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영아와 상관 없이 엄마의 일방적인 의향에 따라 수유를 조절하였고 모아 관계의 신뢰를 성립시켜주는 시각적 접촉은 드물었으며 영아의 발성상태에 낮은 민감성을 보이므로서 상호작용 파트너인 어머니의 행동에 결합하려는 영아쪽의 신호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영아가 2-3개월이 되어 사회적 미소를 보여주기 전까지 영아에 대한 반응으로 미소를 짓거나 모아 서로가 응시하는 등의 상호교류가 적은 것은 영아를 상호작용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여 전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영아의 특성을 비롯, 모아상호작용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하였다. 임숙빈 등(1994) 연구에서도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이 애착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어머니의 적절한 접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스러운 모아상호작용으로만 두기 보다는 어머니에게 아동의 특성에 따라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하여 영아의 신호, 즉 협응신호(engagement cue), 비협응신호(disengagement cue), 반사 행동(reflex behavior) 및 일 반적인 신호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을 조사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은 강릉시내 소재한 1개의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와 보건소에서 제태기간이 38-42주이며 출생시 체중이 2500g이상인 정상만삭아로 출생후 1개월에서 6개월사이인 영아 어머니 151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주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미비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14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7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였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연구자가 Barnard의 NCAST program의 문헌 중 infant cue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협응신호에 대한 내용 10문항, 비협응신호에 대한 내용 11문항, 반사행동 및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내용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당 민감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2개의 긍정반응과 2개의 부정반응, 의미를 두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1개의 항목,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나타내는 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2인이 수정 보완하여 최종 30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hronbach' alpha는 .75이었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X<sup>2</sup>로 비교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와 같이 아기성별, 출생순위, 수유형태,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어머니의 최종학력, 양육 조력자, 분만형태, 어머니의 나이, 출생시 체중, 월평균 수입, 아기의 기질을 조사하였다.

아기의 성별은 남자 69명(47.9%), 여자 75명(52.1%)로 여자가 약간 더 많았으며 출생순위에서는 첫째가 67명(46.6%), 둘째가 64명(44.4%), 셋째가 13명(9%)으로 첫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형태로는 모유수유가 26명(18.1%), 인공수유가 75명(52.1%), 혼합수유가 43명(28.8%)로 인공수유의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구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1995)의 수유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39.3%의 모유수유를 나타낸 것에 비해 낮은 모유수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있어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와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수	(%)
출생순위	첫 째	67	46.5
	둘 째	64	44.4
	셋 째	13	9.1
성 별	남	69	47.9
	녀	75	52.1
수유형태	모 유	26	18.1
	인 공	75	52.1
	혼 합	43	29.8
어머니 직업	유	44	30.6
	무	100	69.4
어머니 학력	대학교 이상	56	36.1
	고 졸	82	56.9
	중 졸	3	2.0
	국 졸	3	2.0
양육시 조력자	유	84	58.3
	무	60	41.7
분만형태	자연분만	96	66.7
	제절개	48	33.3
어머니의 연령	20-24	11	7.6
	25-29	64	44.4
	30-34	53	36.8
	35세 이상	16	11.1
출생시 체중	3.0kg 이하	40	27.8
	3.0-4.0kg 이하	97	67.3
	4.1kg 이상	7	4.9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40	27.8
	100-200만원 미만	80	55.5
	200-300만원 미만	41	28.5
	300만원 이상	17	11.8
아기의 연령	1개월	57	39.6
	2개월	39	27.1
	3개월	6	4.2
	4개월	15	10.4
	5개월	9	6.2
	6개월	18	12.5
아기의 기질	보채는 편	26	18.1
	순한 편	118	81.9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100명(69.4%)로 대부분 직업이 없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으로는 고졸이 82명(56.9%)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 졸업이 56명(36.1%)으로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형태에서는 자연분만이 96명(66.7%), 제

왕절개가 48명(33.3%)로 나타나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권(1995)의 연구에서 자연 분만이 45.8%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연분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시 조력자에 대해서는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84명(58.3%), 조력자가 없는 경우는 60명(41.7%)로 나타났다. 조력자가 있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친정 어머니가 42명(29.1%), 시어머니가 31명(21.5%), 기타 다른 조력자인 경우가 11명(7.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는 25세 미만이 11명(7.6%), 30세 미만이 64명(44.4%), 35세 미만이 53명(36.8%), 35세 이상이 16명(11.1%)로 평균 나이는 29.7세이고 가장 많은 연령군은 25세에서 29세 사이였고 영아의 출생시 체중은 평균 3.3kg이고 3.0-4.0kg 사이의 출생시 체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영아의 연령은 1개월이 57명(39.6%), 2개월이 39명(27.1%)로 과반수 이상이 어린영아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기질은 아기가 잘먹고 잘자며 보채지 않는 경우는 순한편으로 표시하고 잘 울고 젖을 잘 먹지 않는 경우 등은 보채는 편이라고 어머니가 반응하도록 한 경우에 자신의 영아를 순한편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118명(82.9%), 보채는 편이라고 한 경우는 26명(18.1%)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영아를 대체적으로 순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80명(5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명(4.2%)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79.8만원으로 비교적 경제적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아상호작용이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몇 연구는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족에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불안한 애착을 형성한다는 보고하였다(Dymphna C. van den Boom, 1994).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저소득으로 인한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으리라 사료된다.

## 2. 각 문항별 어머니의 민감성 정도

각 문항별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정도는 <표 2>에서와 같다.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 것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모아상호작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95명(65.8%)로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가 바라보는 것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27명(18.8%)로 나타났고 아예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6명(4.2%)로 나타났으며 ‘나와 눈을 맞춘다’는 항목에 대해서 62명(43.4%)가 어머니와 놀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어머니를 찾는 것이기에 32명(22.4%)로 답하여 비교적 많은 어머니들이 시각적 접촉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으로 민감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34명(23.8%)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아를 수동적인 개체이며 의미 있는 신호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모아상호작용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각적 접촉에 대한 민감성 향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입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용아리를 하는 것으로 민감성을 나타내는 어머니가 81명(56.2%)를 나타냈고 어머니와 놀고 싶은 것으로 즉 모아상호작용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22명(15.3%)며 모르겠다 또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17명(11.8%)으로 영아가 소리를 내며 반응하는 것에 어머니들의 민감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난다’는 것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은 영아가 아주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71명(49.3%), 젖이 잘 나오는 것이라고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42명(29.2%)로 나타내 비교적 적절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경우도 삼킬 때 나는 일상적인 소리로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와 부정적, 혹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각각 13.2%, 2.8%, 5.6%로 나타났다. ‘젖을 먹을 때 아기 손이 꼭 쥐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79명(54.9%)이 아기들은 언제나 손을 꼭 쥐고 있는 편이라고 하여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적절하게 하거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민감성을 표현한 경우는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수유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퍼진다’에 대해서 77명(53.4%)이 배가 불러 편안하다라고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해석한 반면에 34명(23.7%)는 일상적인 행동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경우가 수유 상황으로서 이때 어머니가 자신의 영아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므로해서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상호성이 증진되고 상호작용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잘못

된 반응을 보이므로서 상호작용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수유 상황에서 영아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민감성을 보인다면 강제로 수유를 하거나 배고픈대도 어머니의 의도에 따라 억지로 수유하거나 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소리내어 웃는다’에 대해서는 놀고 싶다는 것이다가 23명(15.9%), 즐겁다는 것이다가 81명(56.3%)로 대부분 적절하게 영아 신호를 인지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르겠다라고 한 경우도 26명(18.1%)로 영아 신호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다가가면 손을 뻗는다’에 대해서 57명(39.6%)가 어머니와 놀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30명(20.8%)가 어머니를 만지고 싶은 것으로 해석하므로서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민감성을 나타냈으나 34명(23.6%)가 모르겠다라고하여 영아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에 대해서 84명(58.3%)가 단순히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영아가 신호를 보인 것으로 대부분 해석하고 있었으며 51명(35.4%)은 엄마를 알아보고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다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미소를 짓는다’에 대해서 82명(56.9%)가 영아가 기분이 좋은 것으려 해석하고 있으며 23명(15.9%)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 즐겁다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37명(25.7%)은 배냇짓이라고 해석하여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10개의 협응 신호(engagement cue)에 대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 적절하게 영아 신호를 해석하여 민감성을 나타내었으나 아직도 영아를 수동적이고 영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응 신호는 어머니와 영아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신호로 어머니가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여 적절한 민감성을 나타낸다면 영아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얼굴에 표정없이 가만히 있다’에 대해서 영아가 편안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80명(55.6%)이며 아기들의 일반적인 표현이다에 34명(23.6%)이 답하였으며 지루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도 9명(6.3%)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답으로는 잠이 오거나 기분이 좋지 않

은 경우로 해석을 하였다.

‘하품을 한다’에 대해서 아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가 37명(25.7%)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36명(25%)이 어머니에게 안기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절하지 못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기타 대답으로는 졸립다고 해석한 경우가 23명(16.7%)으로 나타났다.

‘젖을 빨아낸다’에 대해서 94명(65.3%)이 배가 부르다고 해석하였으며, 31명(21.5%)이 먹기 싫다라고 해석하여 같은 의미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이 비교적 많으나 부정적인 해석도 많이 나타내었다. ‘젖꼭지를 밀어낸다’에 대해서 104명(72.2%)이 배가 부르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35명(24.3%)는 먹기 싫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또한 ‘수유도중 발로 찬다’에 대해서 71명(49.3%)이 어머니와 놀고 싶거나 기분이 좋아서 하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33명(22.9%)는 의미없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짜증이 나는 것, 어머니가 싫다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17명(11.8%)이었고 이런 신호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21명(14.6%)이 나타내어 영아 신호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해석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손가락을 뻗는다’에 대해 59명(40.9%)가 아기들은 무조건 입에 넣는 습관이 있다라고하여 의미를 두지 않은 반면 40명(27.8%)은 배가 고프는 것으로 적절히 해석하였다. 그러나 14명(9.7%)은 모르겠다라고하여 영아 신호를 해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기가 손을 배에 댄’에 대해서 65명(45.1%)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64명(44.4%)는 모르겠다라고하여 어머니들이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수유와 관련된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얼굴을 찡그린다’에 대해 67명(46.5%)가 귀찮다는 비협응 신호로 받아들였으나 39명(27.1%)가 어머니에게 안기고 싶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13명(9.0%)는 얼굴 근육이 움직인 것 즉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안았을 때 몸을 뒤로 제긴다’에 대해 89명(61.8%)이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하여 비협응 신호로 해석하기 보다는 모아상호작용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해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3명(22.9%)가 어머니와 있는 것이 즐겁다 혹은 어머니와 장난치고 싶

다는 협응신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아 신호를 적절하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짧은 간격으로 낮은 소리로 운다’에 대해 95명(65.9%)이 어머니가 안아주었으면 하는 행동으로, 얼러주면 좋겠다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21명(14.6%)만이 배가고프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크고 길게 갑자기 운다’에 대해 48명(33.3%)이 잠투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23명(15.9%)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여 비협응신호로 해석하였으나 38명(26.4%)은 어머니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협응신호로 해석하였고 기타로는 놀라거나 배가고파서 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해석하였다. 비협응 영아 신호 특히 울음과 관련된 신호에 대해 어머니들이 잘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이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협응 신호 보다는 비협응 신호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모아상호작용에 중요한 수유에 관련된 비협응 신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울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영아가 나타내는 다양한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꼭 편다’에 대해 77명(53.5%)가 아기가 간지럽다는 것으로 7명(4.9%)은 아기가 장난을 치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34명(23.6%)은 아기는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11명(7.6%)은 아기가 몸이 불편하거나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10명(6.9%)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큰 소리가 들리면 팔을 활짝 펼친다’에 대해 대다수 어머니 129명(89.6%)이 라기가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뺨을 툭툭 치면 자극 받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문항에 대해 70명(48.6%)은 아기가 젖을 먹고 싶다는 것으로 15명(10.4%)은 어머니와 놀고 싶은 것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였고 36명(25%)은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해석하였으나 23명(15.9%)은 아기가 몸이 불편하거나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아기 손을 잡으면 꼭 친다’에 대해 87명(60.4%)이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해석하였고 33명(23.9%)은 어머니와 놀고 싶거나 어머니를 알아 보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하였고 18명(12.5%)은

몸이 불편하거나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

‘아기가 엎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에 대해 33명(22.9%)은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47명(32.6%)은 즐겁게 노는 것이거나 똑바로 누우려는 것으로 30명(20.8%)은 몸이 불편하거나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으로 해석한 반면 31명(21.5%)은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영아의 반사행동에 대해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거나 그 행동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시 영아의 반사행동에 대한 지식을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기가 밤에 자주 깬다’에 대해 107명(74.3%)이 아기가 불편하거나 배가고파 짜증을 내는 행동으로 해석하였고 15명(10.4%)은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11명(7.6%)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에 대해 97명(67.4%)가 배가 불러 편안하거나 잠이 온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해석하였고 38명(26.7%)은 아기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해석하였다.

‘낮에도 잠을 안잔다’에 대해 57명(39.6%)이 어머니와 노는 것이 즐겁거나 새로운 환경에 흥미로와 그런 것으로 해석한 반면 48명(33.3%)은 아기가 불편해서 또는 예민해서 그렇다고 부정적인 해석은 하였고 19명(13.2%)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딸꾹질을 한다’에 대해 63명(43.8%)이 기저귀가 젖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36명(25%)은 아기들은 자주 그런다라고, 22명(15.3%)은 젖을 급하게 먹었다라고, 8명(4.5%)은 아기가 몸이 불편하거나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으로 해석하였다. 그외도 아기가 추워서, 트림을 충분히 못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아기 양육시 혼하게 있으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아가 나타내는 신호는 매우 다양하며 그 신호가 의미하는 뜻도 어머니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는 어머니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신호를 전달해야하고 어머니는 그 신호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모아상호작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영아가 나타내는 신호는 무엇이 있으며 그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머니의 반

〈표 2〉 각 문항별 어머니의 민감성 정도

문항	항목	실수	(%)
1.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	① 애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95	65.9
	② 젖을 먹고 싶은 것이다	15	10.4
	③ 그냥 쳐다보는 것이다	27	18.8
	④ 혼자 가만히 있고 싶다는 것이다	0	0.0
	⑤ 나를 피하는 것이다	0	0.0
	⑥ 모르겠다	6	4.2
	⑦ 기타	1	0.7
2. 입으로 소리를 낸다.	① 놀고싶는 것이다	22	15.3
	② 즐겁다는 것이다	22	15.3
	③ 용아리를 하는 것이다	81	56.2
	④ 졸립다는 것이다	4	2.8
	⑤ 화가 난 것이다	4	2.8
	⑥ 모르겠다	9	6.2
	⑦ 기타	2	1.4
3.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	① 아주 배고프다는 것이다	71	49.3
	② 젖이 잘나온다는 것이다	42	29.1
	③ 삼킬때나는 일상적인 소리다	19	13.2
	④ 놀고 싶다는 것이다	2	1.4
	⑤ 아주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2	1.4
	⑥ 모르겠다	8	5.6
	⑦ 기타	0	0.0
4. 소리내어 웃는다.	① 놀고 싶다는 것이다	23	15.9
	② 즐겁다는 것이다	81	56.3
	③ 별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9	6.2
	④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3	2.1
	⑤ 울고 싶다는 것이다	1	0.7
	⑥ 모르겠다	26	18.1
	⑦ 기타	1	0.7
5. 내가 다가가면 손을 뻗는다.	① 나와 놀고 싶은 것이다	57	39.6
	② 나를 만지고 싶은 것이다	30	20.8
	③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은 것이다	19	13.2
	④ 내가 다가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0	0.0
	⑤ 내가 싫다는 것이다	0	0.0
	⑥ 모르겠다	34	23.6
	⑦ 기타	4	2.8
6. 젖 먹을 때 아기 손이 꼭 쥐어져 있다	① 배고프다는 것이다	16	11.1
	② 내 손을 잡고 싶다는 것이다	20	13.9
	③ 아기들은 언제나 손을 꼭 쥐고 있는 편이다	79	54.9
	④ 먹기싫다는 것이다	1	0.7
	⑤ 배부르다는 것이다	2	1.4
	⑥ 모르겠다	24	16.8
	⑦ 기타	2	1.4

〈표 2〉 계속

문항	항목	실수	(%)
7.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① 나와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다	13	9.0
	② 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38	26.4
	③ 소리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다	84	58.3
	④ 예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1.4
	⑤ 나와 놀고 싶지 않다	0	0.0
	⑥ 모르겠다	7	4.9
	⑦ 기타	0	0.0
8. 나와 눈을 맞춘다	① 나와 놀고 싶어하는 것이다	62	43.4
	② 나를 찾는 것이다	32	22.9
	③ 눈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것이다	34	23.8
	④ 내가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9	6.3
	⑤ 나와 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0	0.0
	⑥ 모르겠다	6	4.2
	⑦ 기타	0	0.0
9. 미소를 짓는다.	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23	17.9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82	56.9
	③ 배냇짓이다	37	25.7
	④ 자신을 달래는 행동이다	0	0.0
	⑤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0	0.0
	⑥ 모르겠다	2	1.4
	⑦ 기타	0	0.0
10. 수유 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펴진다	① 배가 불러 편안하다는 것이다	77	53.5
	②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16	11.1
	③ 일상적인 행동이다	34	23.6
	④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0	0.0
	⑤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1	0.7
	⑥ 모르겠다	15	10.4
	⑦ 기타	1	0.7
11. 얼굴에 표정없이 가만히 있다.	① 아기가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9	6.3
	② 편안하다는 것이다	80	55.6
	③ 아기들의 일반적인 표정이다	34	23.6
	④ 지루하다는 것이다	9	6.3
	⑤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	0	0.0
	⑥ 모르겠다	5	3.5
	⑦ 기타	7	4.7
12. 하품을 한다.	① 나와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다	2	1.4
	② 나에게 안기고 싶다는 것이다	36	25.0



<표 2> 계속

문	항	항	목	실수 (%)
		③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37 25.7
		④	지루하다는 것이다	21 14.6
		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1 0.7
		⑥	모르겠다	9 6.3
		⑦	기타	38 26.4
13.	젖을 빨아낸다.	①	배부르다는 것이다	94 65.3
		②	장난하고 싶다는 것이다	5 3.5
		③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5 3.5
		④	삼키지 못해서 빨아내는 것이다	9 6.4
		⑤	먹기 싫다는 것이다	31 21.5
		⑥	모르겠다	0 0.0
		⑦	기타	0 0.0
14.	얼굴을 찡그린다.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6 4.2
		②	나에게 안기고 싶다는 것이다	39 27.1
		③	얼굴 근육이 움직인 거다	13 9.0
		④	귀찮다는 것이다	67 46.5
		⑤	나와 놀기 싫다는 것이다	2 1.4
		⑥	모르겠다	7 4.9
		⑦	기타	10 6.9
15.	내가 안았을 때 몸을 뒤로 제킨다	①	나와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11 7.6
		②	나와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22 15.3
		③	자세가 불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89 61.8
		④	나와 있는 것이 지루하다	3 2.1
		⑤	내가 안는 것이 싫다	4 2.9
		⑥	모르겠다	11 7.6
		⑦	기타	4 2.8
16.	손가락을 뺀다.	①	장난 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7 4.9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10 6.9
		③	아기들은 무조건 입에 넣는 습관이 있다	59 40.9
		④	스스로를 달래는 행동이다	13 9.0
		⑤	배고프다는 것이다	40 27.8
		⑥	모르겠다	14 9.7
		⑦	기타	1 0.7
17.	짧은 간격으로 낮은 소리로 운다.	①	내가 안아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53 36.8
		②	내가 얼러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42 29.2
		③	아기들의 일상적인 표현이다	6 4.2
		④	배고프다는 것이다	21 14.6

<표 2> 계속

문	항	항	목	실수 (%)
		⑤	아기가 짜증을 내는 것이다	17 11.8
		⑥	모르겠다	3 2.1
		⑦	기타	2 1.4
18.	크고 길게 잡자 기운다.	①	내가 안아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38 26.4
		②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10 6.9
		③	아기들의 일상적인 표현 방법이다	5 3.5
		④	잠투정하는 것이다	48 33.3
		⑤	많이 아프다는 것이다	23 15.9
		⑥	모르겠다	6 4.2
		⑦	기타	14 9.7
19.	젖꼭지를 밀어낸다.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2 1.4
		②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104 72.2
		③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1 0.7
		④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2 1.4
		⑤	먹기 싫다는 것이다	35 24.3
		⑥	모르겠다	0 0.0
		⑦	기타	0 0.0
20.	수유도중 발로 찬다.	①	나와 같이 놀고 싶다는 것이다	11 7.6
		②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60 41.7
		③	의미없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33 22.9
		④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15 10.4
		⑤	내가 싫다는 것이다	2 1.4
		⑥	모르겠다	21 14.6
		⑦	기타	2 1.4
21.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 울 짝 펴낸다	①	나와 장난치고 싶다는 것이다	7 4.9
		②	간지럽다는 것이다	77 53.5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34 23.6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2 1.4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9 6.3
		⑥	모르겠다	10 6.9
		⑦	기타	5 3.5
22.	큰소리가 들리면 팔을 활짝 펼친다	①	장난을 치는 것이다	4 2.8
		②	놀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129 89.6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3 2.1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 0.7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4 2.9
		⑥	모르겠다	3 2.8
		⑦	기타	0 0.0

〈표 2〉 계속

문항	항목	실수	(%)
23. 뺨을 툇툇 치면 자극 받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15	10.4
	② 젓이 먹고 싶다는 것이다	70	48.6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36	25.0
	④ 몸이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0	0.0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7	11.8
	⑥ 모르겠다	6	4.2
	⑦ 기타	0	0.0
24. 아기 손을 잡으면 확 쥘다.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20	13.9
	② 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13	9.0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87	60.4
	④ 배가 고파 하는 행동이다	4	2.8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4	9.7
	⑥ 모르겠다	6	4.2
	⑦ 기타	0	0.0
25. 아기가 얼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	① 즐겁게 노는 것이다	31	21.5
	② 똑바로 누우려는 것이다	16	11.1
	③ 아기들은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이다	33	22.9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27	18.8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3	2.1
	⑥ 모르겠다	31	21.5
	⑦ 기타	3	2.1
26. 아기가 손을 배에 댄다.	① 내가 배를 만져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5	3.5
	② 배가 부르다는 것이다	5	3.5
	③ 무의식적으로 아기 손이 배로 가는 것이다	65	45.1
	④ 배가 고파다는 것이다	0	0.0
	⑤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1	0.7
	⑥ 모르겠다	64	44.4
	⑦ 기타	4	2.8
27. 밤에 자주 깬다.	① 나와 놀고 싶다는 것이다	5	3.5
	② 기분이 좋아 잠이 안온다는 것이다	4	2.8
	③ 아기들은 누구나 밤에 자주 깬다	15	10.4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48	33.3
	⑤ 배가 고파 짜증을 내는 것이다	59	40.9
	⑥ 모르겠다	11	7.6
	⑦ 기타	2	1.4

〈표 2〉 계속

문항	항목	실수	(%)
28. 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① 배가 불러 편안하다는 것이다	45	31.3
	② 잠이 온다는 것이다	52	36.1
	③ 아기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다	38	26.4
	④ 귀찮다는 것이다	1	0.7
	⑤ 나와 놀기 싫다는 것이다	0	0.0
	⑥ 모르겠다	5	3.5
	⑦ 기타	3	2.1
29. 낮에도 잠을 안 잔다.	① 나와 노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다	14	9.7
	② 새로운 환경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43	29.9
	③ 대부분의 아기들은 그러하다	17	11.8
	④ 아기가 불편해서 그렇다	21	14.6
	⑤ 아기가 예민해서 그렇다	27	18.8
	⑥ 모르겠다	19	13.1
	⑦ 기타	3	2.1
30. 딸꾹질을 한다.	① 기저귀가 젖었다는 것이다	63	43.8
	② 젖을 급하게 먹었다	22	15.3
	③ 아기들은 대부분 자주 그런다	36	25.0
	④ 아기가 불편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7	4.9
	⑤ 아기가 예민해서 나타내는 행동이다	1	0.7
	⑥ 모르겠다	3	2.1
	⑦ 기타	12	8.3

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나 지식이 없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문항별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항별 비교는 표3에서와 같다.

####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문항별 비교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은 협응 신호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p=0.037)로 어머니의 나이가 30세 이전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였고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은 약한 긍정과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보였고 비협응 신호에서는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문항별 비교(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나타냄)

특 성	항목	X <sup>2</sup> (p)
어머니 연 령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27.45(0.037)*
	짧은 간격으로 낮은 소리로 운다	38.72(0.029)*
	아기 손을 잡으면 꼭 친다	31.69(0.047)*
	아기가 엎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	42.45(0.011)*
	낮에도 잠을 안잔다	58.24(0.001)**
출생시 체중	아기가 손을 배에 댄다	21.81(0.016)*
월평균 수입	입으로 소리를 낸다	30.72(0.031)*
	미소를 짓는다	18.28(0.032)*
	수유 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퍼진다	34.28(0.003)**
	아기가 엎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	31.37(0.026)*
출생순위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짝 편다	21.00(0.05)*
수유형태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	16.20(0.04)*
	아기 손을 잡으면 꼭 친다	18.84(0.042)*
어머니의 학력	입으로 소리를 낸다	50.28(0.001)**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	32.99(0.040)*
	미소를 짓는다	42.18(0.001)**
	젖을 빨아낸다	45.53(0.001)**
	젖꼭지를 밀어낸다	53.17(0.001)**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짝 편다	43.37(0.009)**
	뺨을 툑툑 치면 자극 받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27.37(0.037)*
	아기 기질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	20.90(0.001)**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10.87(0.028)*
	하품을 한다	23.39(0.001)**
	낮에도 잠을 안잔다	23.32(0.001)**
딸꾹질을 한다	13.25(0.039)*	
아기의 연 령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	32.73(0.036)*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	41.50(0.020)*
	소리내어 웃는다	52.34(0.007)**
	나와 눈을 맞춘다	35.51(0.018)*

‘짧은 간격으로 낮은 소리로 운다’(p=0.029)로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반면 30세 이

전의 어머니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차이를 보였다. 반사행동과 일반적인 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기 손을 잡으면 꼭 친다’(p=0.047), ‘아기가 엎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p=0.011)로 30세 이전의 어머니들은 아기들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30세 이상의 어머니들은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해석이 다양하였고, ‘낮에도 잠을 안잔다’(p=0.001)는 25세에서 34세 미만의 어머니들은 의미를 두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30세 미만은 긍정적과 부정적인 해석을 골고루 나타냈으며 35세 이상인 어머니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주로 하였다.

2) 아기의 출생시 체중에 따른 문항별 비교

아기의 출생시 체중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비협응 신호 중 ‘아기가 배에 손을 댄다’(p=0.016)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3.0kg 이하인 경우 모르겠다라고 답하였고 3.1kg 이상인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아기 손이 배로 가는 것으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양육시 조력자 유무에 따른 문항별 비교

양육시 조력자 유무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도움을 받는 경우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지식을 얻게 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영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절한 민감성을 보인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4) 월평균 수입에 따른 문항별 비교

월평균 수입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협응 신호 중 ‘입으로 소리를 낸다’(p=0.031), ‘미소를 짓는다’(p=0.032), ‘수유 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퍼진다’(p=0.003)이고, 반사행동 중 ‘아기가 엎드렸을 때 팔과 다리가 기는 것 같다’(p=0.026)로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였다.

5) 아기의 출생순위에 따른 문항 비교

아기의 출생순위에 따른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반사행동 중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짝 편다’(p=0.05)로 경산부인 경우에 영아의 반사행동을 반사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아기의 성별에 따른 문항별 비교

아기의 성별에 따른 문항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7) 수유형태에 따른 문항별 비교

수유형태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혐응 신호 중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p=0.04)로 모유 수유인 경우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민감성을 나타내 모유 수유시 민감성이 향상되고 모아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뒷받침해두고 있다. 비협응 신호 중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며 반사행동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아기 손을 잡으면 꼭 쥐다'(p=0.042)로 모유 수유인 경우 인공 수유나 혼합 수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감성을 보였으며 혼합 수유인 경우는 가장 부정적인 해석을 남성이 하였다.

#### 8)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른 문항별 비교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혐응 신호 중 '입으로 소리를 낸다'(p=0.001),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p=0.040), '미소를 짓는다'(p=0.001)이고 비협응 신호 중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젖을 뱉어 낸다'(p=0.001), '젖꼭지를 밀어낸다'(p=0.001)이며 반사행동 중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발바닥을 문지르면 발가락을 꼭 편다'(p=0.009), '뺨을 툭툭 치면 자극 받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p=0.037)였다.

#### 9) 분만형태에 따른 문항별 비교

분만형태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10) 어머니가 인지한 영아의 기질에 따른 문항별 비교  
어머니가 인지한 영아의 기질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혐응 신호 중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를 낸다'(p=0.001),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p=0.028)로 영아를 순하다고 인지한 경우에 혐응 신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감성을 나타내었고 비협응 신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하품을 한다'로 비협응 신호로 또는 졸리운 것으로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반사행동이나 일반적인 행동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낮에도 낮잠을 안잔다'(p=0.001), '달꼭질을 한다'(p=0.039)로 영아의 기질을 순하다고 인지한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으로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 11) 아기의 연령에 따른 문항별 비교

아기의 연령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혐응 신호 중 '나의 얼굴을 쳐다본다'(p=0.036), '수유할 때 젖을 삼키는 소리가 난다'(p=0.020), '소리내어 웃는다'(p=0.007), '나와 눈을 맞춘다'(p=0.018), '수유 도중 아기의 손가락이 퍼진다'(p=0.018)로 아기의 연령이 많을수록 혐응 신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민감성을 보였으며 비협응 신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반사행동 및 일반적인 행동에서는 '뺨을 툭툭 치면 자극 받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p=0.008)로 아기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혹은 아기면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민감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영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영아 신호에 적절한 민감성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리라 생각된다.

#### 12)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문항별 비교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문항별 비교에서는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조사하여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1997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강릉 시내에 소재한 1개의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와 보건소를 방문한 출생시 체중이 2500g 이상이고 체태 기간이 38주 이상인 영아의 어머니 14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Barnard의 NCAST program의 문헌 중 infant cue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혐응신호에 대한 내용 10 문항, 비협응신호에 대한 내용 11문항, 반사동작 및 일반적인 신호에 대한 내용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당 민감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2개의 긍정반응과 2개의 부정반응, 의미를 두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1개의

항목,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나타내는 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협응 신호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많은 어머니들이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는, 즉 영아가 모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개체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인 개체로서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비협응 신호에 대해서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고자 하거나 수유를 원하거나 중단하기를 바라는 신호에 대해 어머니들이 적절한 민감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반사행동 및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민감성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영아 누구나 나타내는 행동으로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문항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영아의 출생시 체중, 가정의 월평균 수입, 출생순위, 수유형태, 영아 기질, 영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본 연구는 정상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여 신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체중 출생아의 어머니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2)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신호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간호중재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권미경(1995). 일부 도시지역 어머니들의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연구, 영동전문대 논문집, 제 21집, 1권.

권인수(1992). 정상아와 고위험 출산아의 모아상호작용 양상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임(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미례(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연구, 이화대 박사학위논문.

이자형(1996). 산욕 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2.

임숙빈(1997).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에 착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숙빈, 주세진, 오민자, 권미경 및 곽은영(1994). 자폐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발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1), 29-43.

한경자(1996). 부모자녀건강학회 주제발표

한경자(1986).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insworth, M.D.S., Bell, S.M., and Stayton, D.J. (1974). Infant - Mother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 "Socialization" as a product of reciprocal responsiveness to signals, ed. Richards, M.P.M., The integration of a child into a soci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erson C.J.(1981). Enhancing reciprocity between mother and neonate, Nursing Research, 30(2), 89-93.

Barnard Kathryn E.(1978a). The Nursing Child Satellite Training seri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Barnard Kathryn E.(1978b).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eeding and teaching scal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Dymphna C. van den Boom(1994).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Mothering on Attachment and Exploration :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Sensitive Responsiveness among Lower-Class Mothers with Irritable Infant, Child development, 65, 1457-1477.

Lynda Harrison and Roy Ann Sherrod,(1991). Effects of Hospital-Based Instruction on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Preterm Infants, Neonatal Network, vol.9 No.7, 27-33

Mates, L., Arend, R. A., & Sroufe, L. A.(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 547-556.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Wachs, T. D. and Gruen, G. (1984). Environmental Stim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6–10.

– Abstract –

Key concept : Infant cue, Mother's responsiveness

### The Descriptive Study on the Mother's Responsiveness to Infant Cue

*Kwon, Mi Kyung\**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mother's responsiveness to infant cue in order to improv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infant. The subjects were 144 mothers who gave birth to at general hospital or a public health center in Kangnung. The gestational age of infants was more than 38 weeks and birth weight was more than 2500g.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content about infant cue in Barnard's NCAST

program. This questionnaire was revi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experts in this field. The question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 10 questions about engagement cue, 11 questions about disengagement cue, and 9 questions about general cue and reflex behavior. Each item measured the mother's responsiveness to infant cue using 5 scales : 2 positive responsiveness, 1 negative responsiveness, and 1 meaningless, 1 for in case which mother can't recognize the meaning of reaction.

The result presented that mothers showed positive reaction to engagement cue. However, most mothers still didn't recognize that their infants can lead a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show active response in interaction. Mothers tended to treat them as just passive objects. In disengagement cue, mothers tended not to give proper responsiveness to their infants when the infants desired feeding or not and they did not desire mother–infant interaction. In general cue and reflex behavior, the mother's reaction was positive and they took it granted as a infant's behavior. When each item was analyzed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ther's age, birth weight, average house income, birth order, feeding type, nature of infant, and infant's age.

---

\*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